



소개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 오프닝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혁신의 중심지를 기념하는
몰입형 전시회의 시작

주요 정보:

- **프라이빗 오프닝:** 글로벌 앰버서더 아이유, 장쯔이, 잭슨 이, 김우빈을 비롯해 진비우(Arthur Chen), 에릭 추(Eric Chou), 닝중옌(Ning Zhongyan)이 함께한 *밸리 오브 인벤션* 프라이빗 오프닝 나잇
- **특별한 제품 큐레이션:** 지난 4 월,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된 2026 년 컬렉션과 함께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 **몰입형 체험:** 실시간 시연, 교육 프로그램 및 독창적인 얼음 조각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공간

2026 년 9 월 10 일, 상하이 – 스위스 워치메이킹 메종 예거 르쿨트르가 상하이 장위안에서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 전시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약 200 년에 걸친 유산과 혁신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회는 기술적, 예술적 정밀함을 추구해 온 메종의 창의성과 발명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또한 발레드주의 환경이 어떻게 끈기와 인내, 독창성의 문화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현대 워치메이킹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에 남을 오프닝 행사

이 특별한 전시회의 개최를 맞이하여, 예거 르쿨트르는 글로벌 앰버서더 아이유, 장쯔이, 잭슨 이, 김우빈을 비롯해 저명한 예술가 진비우와 에릭 추 그리고 세계적인 운동선수 닝중옌을 초청해 프라이빗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확성을 향한 여정



파인 워치메이킹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예거 르쿨트르의 *벨리 오브 인벤션* 전시회에서는 오늘날 메종의 정확성을 완성해 온 다양한 발명을 소개합니다. 전시회는 정확성이 지닌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온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워치메이커, 그리고 메티에 라르™ 장인들의 공헌을 조명합니다.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공개

이번 전시회를 기념해 마스터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945 를 재해석한 두 가지 모델과 새로운 칼리버 101 시크릿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 등 총 10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 타임피스가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터너' 시리즈를 선보이며, 발레 데 메르베이유™ 시리즈의 여성 타임피스 3 가지를 함께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생생한 체험과 장인 정신을 향한 찬사

관람객들은 전시의 핵심을 이루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워치메이킹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정확성을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Atelier d'Antoine)의 **디스커버리 워크숍**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예거 르쿨트르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핵심 워치메이킹 기술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초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초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연: 매뉴팩처의 숙련된 장인들이 구현하는 4 가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장인들과 직접 제작 기술에 대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장식 마감부터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무브먼트 조립, 예거 르쿨트르의 선구적인 다축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를



비롯한 다양한 투르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까지, 파인 위치메이킹에 깃든 정확성과 예술성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HPG 실험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예거 르쿨트르 시계의 정확성과 품질을 인증하는 새로운 HPG 실험실의 핵심 단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HPG 실험실은 정교한 마감뿐만 아니라 시계의 높은 정확성까지 보증합니다. 특허받은 프로토콜을 통해 일상 생활 중 착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립된 시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한 뒤 인증을 부여합니다. 관람객들은 충격, 고도별 압력 변화, 다양한 위치 및 온도 변화 등을 포함한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계 장식 예술과 과거 위치메이킹에서 장식 기법이 지녔던 본래의 기능적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트모스와 위치메이킹 오브제의 미스터리: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에트모스 클래식, 에트모스 레귤레이터의 예술적 해석,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새롭게 공개한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 바이 마크 뉴슨 등 메종의 주요 에트모스 모델을 선보입니다.

위치, 운영 시간 및 입장료

‘*밸리 오브 인벤션*’ 전시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하이 장위안에서 개최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WeChat mini program link](#))으로 사전 등록 또는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세대가 지난 19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위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위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 ™ 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 ™ 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